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4주차 (롬 4:18-5:2)

(2017년 4월 9일 - 2017년 4월 15일)

(제5권 14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4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4월 9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란?(1) (주일)

오늘의 본문 (롬4:18-22)

- ¹⁸ Ὅς παρ' ἐλπίδα ἐπ' ἐλπίδι ἐπίστευσεν (그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고 믿었다)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그 결과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κατὰ τὸ εἰρημένον· (다음과 같이 말하심을 따라)
οὕτως ἔσται τὸ σπέρμα σου,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 ¹⁹ καὶ μὴ ἄσθενήσας τῇ πίστει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κατενόησεν τὸ ἑαυτοῦ σῶμα [ῥῆδι] νεκροαίον, (그는 그의 그의 몸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돌아 보았다)
ἐκατονταετῆς που ὑπάρχων, (백세가 되었을 때)
καὶ τὴν νέκρωσιν τῆς μήτρας Σάρρας· (사라의 자궁이 죽었음을 [돌아 보았다])
- ²⁰ εἰς δὲ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θεοῦ οὐ διεκρίθη τῇ ἀπιστίᾳ
(그러나 믿음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ἀλλ' ἐνεδυναμώθη τῇ πίστει, (그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²¹ καὶ πληρορορηθεὶς (완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ὅτι ὁ ἐπὶ ῥημάτων δυνατός ἐστιν καὶ ποιῆσαι.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러는 것을)
- ²² διὸ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고 믿었고 그 결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 보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15 장에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다. 자식 문제로 애달피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롯을 지키려했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을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여전히 사라는 임신할 기미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다.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더는 기대할 것도 없어졌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 거침없이 항변하기 시작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게 생겼습니다...내게 씨를 주지 않나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창 15:2~3).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가 절박했다. 당시에는 자식 없이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삶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혼자서만 가나안으로 온 상태였기에 씨족간 결혼이 공공연한 당시 문화에서 첩을 들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태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하소연에는 무자식인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은 물론

이고 공연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불러내 이런 상황까지 몰고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함께 들어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후손에 관한 엄청난 약속을 해 놓고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지만 그가 그 후에도 그 믿음대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믿음은 그 순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자식에 대한 갈망은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아무런 대책없이 늙어만 가는 아브라함이 못마땅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85 세 되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꼭 10 년이 되는 해 어느 날 보다 못한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남편에게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말이다. 이 말을 하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내로서 자존심이 상한 건 물론이고 여자로서 건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 문제는 사라에게도 그만큼 절실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거라고 했으니 여자야 누가 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생각한 듯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 세였으니 그로부터 13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스마엘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며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도 더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실질적인 장자로 굳게 믿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6 세 되던 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서는 여전히 자식 소식은 없는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랬기에 비록 본처 소생은 아니지만 그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꿩 대신 닭이라고 이스마엘은 탈없이 건강히 자라주었고 그만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도 커졌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은지 어언 13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은 것일까? 엉뚱한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후손이라 여기며 살아온 그 시기를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온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 그것도 무려 14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물론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라고 했지 반드시 사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죄충우돌하며 실수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왜 줄 아는가? 그것조차도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완벽히 다 알고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란?(2)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4:18-22)

- ¹⁸ Ὅς παρ' ἐλπίδα ἐπ' ἐλπίδι ἐπίστευσεν (그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고 믿었다)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그 결과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κατὰ τὸ εἰρημένον· (다음과 같이 말하심을 따라)
οὕτως ἔσται τὸ σπέρμα σου,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 ¹⁹ καὶ μὴ ἀσθενήσας τῇ πίστει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κατενόησεν τὸ ἑαυτοῦ σῶμα [ῥῆδι] νεκροαίον, (그는 그의 그의 몸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돌아 보았다)
ἐκατονταετής που ὑπάρχων, (백세가 되었을 때)
καὶ τὴν νέκρωσιν τῆς μήτρας Σάρρας· (사라의 자궁이 죽었음을 [돌아 보았다])
- ²⁰ εἰς δὲ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θεοῦ οὐ διεκρίθη τῇ ἀπιστίᾳ
(그러나 믿음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ἀλλ' ἐνεδυναμώθη τῇ πίστει, (그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²¹ καὶ πληρορορηθεὶς (완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ὅτι ὁ ἐπὶ ἡμετέροις δυνατός ἐστιν καὶ ποιῆσαι.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 ²² διὸ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13 세가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그의 나이 아흔아홉이었다. 정확히 14 년만이다. 여주인 사라의 꺾박에 도망치듯 집을 나갔던 하갈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여든 다섯이었으니 말이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다. 이스마엘이 장가들어 후손을 얻으면 그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만 놓고 보자면 이스마엘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후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으셨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²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³ 아브람이 었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⁵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⁶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좃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좃아 나리라⁷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⁸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1-8).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두무미(無頭無尾)다. 머리도 꼬리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불러왔던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의 의지는 털끝만큼도 개입되지 않았다. ‘열국의 아버지, 번성, 열왕, 후손,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었을 리 만무하다. 당연히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이스마엘을 통해 열왕이 나올 것이고, 이스마엘이 영원한 기업의 토대가 될 거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스마엘을 통해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상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온갖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이번엔 뜬금없이 할례를 받으란다.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란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자신에게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데 그깟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놀라 자빠질 뻔했다. 말씀인 즉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 장면을 다시 읽어보자.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 17:15-16).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이스마엘과 함께 할 거라 믿었던 그의 꿈들은 이 말씀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다. 도대체 하나님이 맞긴 맞는가? 여태껏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가정에 나타나 파문을 일으켜도 유분수지 이쯤 되면 하나님은 정말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생각이셨으면 애초에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은 초기에 그가 후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야 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거니와 그가 약속한 후손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든지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네 몸에서 나는 씨가 상속자가 된다’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동안 아브라함이 믿어온 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이 옳다고 믿은 대로 살아왔다. 비록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무려 13년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의 나이 아흔 아홉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 그 많은 세월을 아브라함은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셈이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란 말인가? 이스마엘과 함께 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전혀 무의미하고 믿음없는 시간들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허락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해 그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법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며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란?(3)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4:18-22)

- ¹⁸ Ὅς παρ' ἐλπίδα ἐπ' ἐλπίδι ἐπίστευσεν (그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고 믿었다)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그 결과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κατὰ τὸ εἰρημένον· (다음과 같이 말하심을 따라)
οὕτως ἔσται τὸ σπέρμα σου,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 ¹⁹ καὶ μὴ ἀσθενήσας τῇ πίστει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κατενόησεν τὸ ἑαυτοῦ σῶμα [ῥῆδι] νεκρομένον, (그는 그의 그의 몸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돌아 보았다)
ἐκατονταετής που ὑπάρχων, (백세가 되었을 때)
καὶ τὴν νέκρωσιν τῆς μήτρας Σάρρας· (사라의 자궁이 죽었음을 [돌아 보았다])
- ²⁰ εἰς δὲ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θεοῦ οὐ διεκρίθη τῇ ἀπιστίᾳ
(그러나 믿음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ἀλλ' ἐνεδυναμώθη τῇ πίστει, (그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²¹ καὶ πληρορορηθεὶς (완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ὅτι ὁ ἐπίγγελται δυνατός ἐστιν καὶ ποιῆσαι.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 ²² διὸ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또한 그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걸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걸까? 창세기를 읽다보면 우리가 생각해 온 믿음의 개념이 흔들리게 된다. 믿음은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추상 명사인데 ‘믿는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또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미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또는,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인용).

엄밀히 말해 성경적 믿음은 국어사전적 믿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 믿음은 전적으로 믿는 당사자에게서 유래한다. 다시 말해 믿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는 주체인 당사자에게서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믿음은 인간 내부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 약속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인간들의 행위, 상태, 노력, 의지, 신념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리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자.

“⁴⁷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

하리요 하고 ¹⁸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7-18).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서 과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한다.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자.(헬라이어 원문 직역을 의미에 맞게 의역하였음)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들었다]. 그 때 그의 몸이 거의 죽었다는 것과 사라의 자궁이 죽은 것을 볼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셨기 때문이다.”(롬 4:18~21).

도대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고 말한 걸까?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당연히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고, 더 이상 사라를 통해 아들을 볼 생각은 아예 접었다. 생물학적으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보다는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 밖엔 안 나왔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개인적 소신일까? 전혀 아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개인적 소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성경적 믿음이란 인간이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사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웃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믿음의 성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미쁘신 분이란다. ‘미쁘신’의 헬리어는 ‘피스토스’ (πιστός)다. ‘신실한, 믿는, 충성스러운’이란 뜻이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취소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없음으로 보시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조차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믿음의 수혜자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 받은 사람들이다. 살다보면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증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처지나 상태와는 무관하게 당신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4:23-25)

²³ Οὐκ ἐγγράφη δὲ δι' αὐτὸν μόνον (그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ὅτι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그에게 여겼다는 말은)

²⁴ ἀλλὰ καὶ δι' ἡμῶς (우리들도 위함이다)

οἷς μέλλει λογιζέσθ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믿을 우리들도 여겨진다)

ἐπὶ τὸν ἐγείραντα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ἐκ νεκρῶν,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를 [믿을])

²⁵ ὡς παρεδό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ἡμῶν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내어줌이 되고)

καὶ ἠγέρθη διὰ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ἡμῶν.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내내 믿음이 의로 여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바울이 그 둘을 예로 든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다. 의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원천을 설명해 오던 바울은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그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를 믿을 우리들도 위함이다.[그를] 믿을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롬 4장 23-24).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고단했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왜 그는 불임인 사라와 결혼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쭉쭉 낳아 후손 걱정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만 유독 자식복이 없었을까? 어쩌다 노년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 이스마엘마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홀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토박이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눈치나 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믿음을 설명하는 교과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의 교본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 삼손의 체력, 모세의 지도력, 갈렙의 충성심, 다윗의 신실함,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완벽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으셨고, 그를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비겁하게 혼자 살겠다고 아내마저 돌아보지 않는 찌질이 같은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는 버젓이 후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이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도 된다. 믿음이 그렇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결론질할 필요도 없다. 남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성취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비교해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에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불의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 기댈 곳은 어디일까? 그저 잘될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회복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를 깨끗하다 여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열 번째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주셨다. 양을 사람 수에 따라 잡고, 그 피를 문 밖 죄우 인방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던 그날 밤 그들은 문을 닫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방 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모두 평안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양 고기를 먹으며 편한 맘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겠지만 어떤 이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을 냈을 것이다. 혹여 모세가 말해준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설사 피를 발랐다 해도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 혹시 자기에게만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혹시 실수로 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지는 않으실까? 이런 저런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세운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문에 발린 피를 보고 심판을 넘긴 것이 집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심판을 넘긴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로지 문에 발린 양의 피였다.

그 피가 믿음이고 그 피가 의의 증거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 특히나 매일 매일 부딪히는 현실들, 그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려고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고통이 옥죄어 오면 어떤 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살다보면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많다.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선 것 같은 부끄러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가림막이 되어 주었으면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일까?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와 무관하게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셨다.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서 헛웃음만 웃던 그에게 기어이 약속하신 자녀를 안겨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표본이다. 당신의 사정이 어떠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정말이지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이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4:23-25)

²³ Οὐκ ἐγγράφη δὲ δι' αὐτὸν μόνον (그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ὅτι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그에게 여겼다는 말은)

²⁴ ἀλλὰ καὶ δι' ἡμῶς, (우리들도 위함이다)

οἷς μέλλει λογιζέσθ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믿을 우리들도 여겨진다)

ἐπὶ τὸν ἐγείραντα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ἐκ νεκρῶν,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를 [믿을])

²⁵ ὡς παρεδό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ἡμῶν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내어줌이 되고)

καὶ ἠγέρθη διὰ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ἡμῶν.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다시 예수님이다. 바울의 서신은 모두 가-승-전-예수님이다. 그는 다음 논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예수님을 통해 재차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한다.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2000년 전 있었던 그 일은 누가 뭐라 해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역사적 사실이 단지 사실에만 그친다면 우리들은 성도가 아니다.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이 나의 현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놓아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아니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부터 살펴보자. 그가 죽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들의 죄에서 찾았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적극적인 행위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만이 죄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은 분명히 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예외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한 유일한 근거가 인간들의 행위일 수는 없다. 갓태어난 어린 아이가 단 한 번 숨을 몰아쉬고는 이내 죽어 가는 경우도 많다. 이 아이는 어떤 악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사회 규범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단지 몇 번의 숨을 헐떡이다 죽었다. 도대체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는가? 하지만 그 아이도 인간이고 그도 예외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죄는 일탈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단절하심으로 인간이 죄인이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그러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하셨으니 하나님이 회복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 줌이 되었다는 명제는 참이다.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사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가장 고통스런 형벌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렸다.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이 흘리신 땀이 피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도 감내하기 힘든 것이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다. 그는 십자가에 넘겨져야 한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통해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인간의 무력함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메울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킨다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 인간들로부터 어떤 것도 찾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들의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을 보여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래를 주어 그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다. 행위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뜻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 대로라야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다. 인간의 죄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해결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의로움의 완성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았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별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즐겁고 좋을 뿐이다. 의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 굳이 뭐하러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셨겠는가? 결국 의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런 우리가 염치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다 선언하신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우리의 자격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나같은 죄인이 온전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 결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평안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5:1-2)

1 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다)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καὶ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ίκαμεν [τῇ πίστει]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들어감을 지녀왔다)
 ἐν ᾗ ἐστήκαμεν (우리가 서 있는)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π' ἐλπίδ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고, 현세에서의 선악 행위에 따라 내세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이 말은 윤회설을 믿는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저지른 실수나 죄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물론 전생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현세에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시고 이런 고통을 치르게 된 거라고 여긴다. 일부 성경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따지고 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 특히 택한 백성들의 악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시고 실제 삶에서 고통으로 보응하신다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에 모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타락을 지켜 보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²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³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합1:2-4).

하박국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리고 정말 유다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유다에게 강한 징계라도 내리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다. 유다 민족의 집단적 타락은 극에 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하박국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박국이 기도하며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듣기에도 섬뚱하다.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로 인해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움짱달 짱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울부짖는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자.

“⁶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찌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 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⁶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⁷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 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⁸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 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⁹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 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¹⁰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건 고한 성을 비웃고 흥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¹¹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 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합 1:5-11).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바벨로니아였고 그 왕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들은 사납기로는 사자보다 더하고, 빠르기로는 표범보다 날쌔다. 한번 공격 대상을 정하 면 무자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 다를 침공하여 성전을 완전히 훼파하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다. 물론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갔다. 이상승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유다 백성의 마지막이 그랬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맞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 자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다.

“²¹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²²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²³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와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렘 44:21-23).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시고 무한히 참으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묵 과하지 않으신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거야!’ 이렇게 생각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받되 당사자에게서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서 받으셨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에게 대신 퍼부으셨다. 예 수님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의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할 심판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 화가 형성되었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평화가 십자가의 진노를 통과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으로 단 번에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허물을 쌓기도 하고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늘 평화를 유지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 는 것은 평안이다.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5:1-2)

- 1 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다)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2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καὶ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ίκαμεν [τῇ πίστει]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들어감을 지녀왔다)
ἐν ᾗ ἐστήκαμεν (우리가 서 있는)
καὶ καυχόμεθα ἐπ' ἐλπίδ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욥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고난 얘기만 나오면 으레 욥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욥은 고난의 아이콘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욥기를 읽는 사람들에 따라 욥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 고통 아래서, 그것도 아무런 잘못 없이 하루 아침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박탈 당한 채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욥으로 해석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으로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필자와 같은 목사들은 욥의 고통을 설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또한 고통이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욥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사실 깊은 고난을 체험한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마련이다. 따라서 은혜를 이야기 하기 위해 특별히 욥의 고난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다.

모든 재산이 하루 아침에 공중으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하루 아침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돋아났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순식간에 뒤덮였다. 욥은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았다. 가려움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깨어진 기왓장을 주워 온 몸을 사정없이 빍빍 긁어댔다. 그 때문에 몸에서는 피가 질질 흘렀다. 그 광경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외친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2:9).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이런 말까지 내뱉었겠는가? 욥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던 그였다. 그는 몸은 물론 마음조차 순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식들마저 다 잃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악창으로 뒤덮여 그야말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 율법에 따르면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욥이 이제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그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 상황에서 누구든 욥의 아내처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욥기서는 욥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욥을 고난 속에 밀어넣은 것은 분명 사탄이다. 하지만 사탄이 독단적이고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탄을 부추겨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복이든 재앙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재앙도 기꺼이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찾아 왔다. 그들은 욥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 욥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역장이 무너져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모두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회개했다. 일곱 주야를 욥과 함께 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레가 지나서 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욥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라고 저주하고는 자기가 처한 고통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욥 3:25-26).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자신을 놓지 않고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했다. 잠이 들면 꿈으로 놀래키는 분이고,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였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 맘 졸이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늘어 놓았다.

“¹⁷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¹⁸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 이까 ¹⁹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²⁰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욥 7:17-20).

많은 신앙인이 욥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지켜보시다가 행여 어떤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사실 욥은 열심히 살았다. 율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욥기 첫부분에서도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1:1)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은 진실이다. 그에게 고통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삶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계셨다. 물론 욥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에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렇다면 욥이 세상적으로 부요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했을까? 자신이 받은 세상의 축복이 자신의 의로움, 순전함, 정직함 때문이라 생각한 건 아닐까? 분명 그랬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셨다. 변호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변호사는 죄인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잘못된 게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욥처럼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